# “불교계, 핵발전소 반대 운동 펼쳐야”

Interview

## 이원영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핵발전소는 후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 후손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됩니다. 불교계가 나서 핵발전소 증설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8월 3일, 군산 동국사에서 만난 이원영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수원대 교수)의 어조는 강경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전신이 땀에 흠뻑 젖은 그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핵발전소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천은 옷과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는 현재 핵발전소 증설반대와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를 주장하는 교수 · 사회활동가들과 ‘탈핵생명국토순례’를 펼치고 있다. 국민들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7월 14일 진도 팽목항서 세월호 희생자 위령제를 올린 뒤 출발한 20일간의 전남북 서해안 순례는 이날 동국사서 회향했다. 폭염 속에서도 약 390km를 걸으며 진도 쌍계사 · 영광 불갑사 · 고창 선운사 · 장성 백양사 · 김제 금산사 등 수많은 사찰을 거쳤다.

“서해안은 핵발전소가 6기나 있습니다. 특히 팽목항은 세월호의 아픔이 남아있는 곳이기에 그 아픔과 핵발전소의 위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국토순례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3차례에 걸쳐 600km에 이르는 거리를 걸으며 핵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영남지역 사찰을 순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도 남해안 사찰을 중심으로 200km를 순례했다. 조계사 신도인 이 교수는 핵발전소가 지닌 문제점과 대안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알리려 사찰순례를 한 것이다.

**진도부터 군산까지 390㎞ 걸으며**

**핵발전소 문제 알리는 데 주력**

**“탈핵교실 열어 바른교육 펼칠 터”**

“우리나라 25개 핵발전소가 공급하는 전기량이 전체 30%에 불과합니다. 요즘 전력 예비율이 20%정도인 걸 감안할 때 핵발전소 증설은 불필요합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핵발전소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각 시설마다 자체 생산해왔기 때문에 경제에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이 같이 주장한 이 교수는 우리나라 특성상 핵발전소는 천재지변보다 안보상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일반 미사일이나 장거리포로도 핵발전소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핵발전소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천했다. 태양광은 이산화탄소를 유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세도 핵발전소를 대체하기 좋은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최근 5년간 태양광발전소 공급이 16배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8배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폐기물 처리장은 임시 저장고 역할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선진국의 경우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감시를 국회 · 지방정부 등이 관장합니다. 심지어 스웨덴은 사법부도 감시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정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표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회에 원자력 감시기구를 설치해 교차감시에 나서야 합니다.”



이원영 위원장은 20일간 390㎞를 걸으며 핵발전소 증설반대 운동을 펼쳤다.

한동안 핵발전소에 대한 위험성을 설파한 그는 앞으로 동네 탈핵교실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 문제를 인식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공불련, 14차 해외성지순례 성료

### 7월 23~30일 중국 관음성지 일대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7월 23~30일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불자로서 신행을 다지기 위해 중국 관음성지(보타낙가산 · 설두산 · 무이산 등) 일대서 제14차 해외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순례에는 김동연 고문을 비롯한 회원 30여명(감사원 등 5개 기관)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 바른법연구원, 5회 금강경 세미나

### 7월 28~31일,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서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대표 김원수)은 7월 28~31일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서 ‘제5회 금강경 연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가자 50여 명은 3박4일간 〈금강경〉을 대주제로 분임토의 · 조별발표 등을 실시했다. 윤호섭 기자

## 남해 미륵암, 삼성각 낙성법회

### 7월 24일, 18나한존자 점안법회도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은 7월 24일 삼성각 낙성식과 독성, 18나한존자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그동안 미륵암 신도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삼성각 불사 원만회향과 향후 개원할 복지관에 대한 설명회를 겸했다.

법회에는 증명법사 성각 스님과 정오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 이끄는 비구니 돼 달라”

### 청도 운문사, 제7회 법륜비구니장학금 수여식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7월 28일 제7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여서 스님, 동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윤서 스님, 동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원교 스님, 동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 의진 스님, 스리랑카 페라데니야대학 불교학과 박사과정 우싱 스님, 미얀마 ITBMU 대학 빨리어과 석사과정 법과 스님 총 6명으로, 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은 수혜자들에게 “앞으로도 수학과 수행을 겸비해 한국불교에 기여할 수 있는 유통교해(流通教海)의 원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명성 스님(운문사 회주)과 상임이사 진성 스님(내원사 주지), 감사 운성 스님(운문사 학감) 외 30여 스님들과 운문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한편 법륜비구니장학회는 비구니 스님 및 불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불교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2009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장학금 마련을 위해 서예작품전시회를 개최, 수입금 5억 원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제주불자 마음 나눠 행복한 세상 발원”

### 제주불교신문 1000호 기념 가파도 대중공양 회향

제주불교신문은 7월 22일 가파도 마을회관서 지령 1000호를 기념해 마련한 ‘섬 속의 섬 가파도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이웃종교의 공격적인 선교로 옅어진 불교정서를 되살리고자 가파도내 유일한 사찰인 대원사와 함께 진행됐다.

22일 오전 가파도에 도착한 40여 제주불자로 이뤄진 자원봉사단은 대원사 참배 후 정정숙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장이 이끄는 이 · 미용 봉사팀과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펼쳤다. 이후에는 수상 스님(반야사 주지)의 축원을 시작으로 ‘날 좀 보소’ ‘이어도 타령’ ‘뱃노래’ 등 고명선 국악인이 펼친 민요공연은 어르신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제주불교신문 대표이사 허운 스님(관음사 주지)은 인사말서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되길 바라며 공덕 짓는 기회를 주신 가파도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원사 주지 혜융 스님은 “1000호 발간 기념법회를 가파도에서 봉행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법회인연으로 모든 이들에게 자비광명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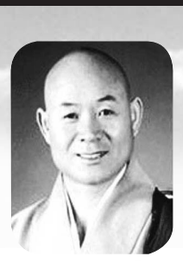
가파리 주민 170명 가운데 60%가 불교라고 밝히며 인사말을 시작한 진명환 이장은 “이곳은 바다와 상대하는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어 문화생활이 늘 아쉬운 곳”이라며 “쉴 때마다 갈망하는 행사가 바로 오늘 같은 마음나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봉사단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공양을 대접하고, 각종 생필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시간을 나눴다.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10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br>• 최종성적증명 1부<br>• 입학신청서 1부<br>• 여권용사진 10부 |
| 석사과정 | 3년 | 50명 | |
| 박사과정 | 3년 | 10명 | |
|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8월 22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 l: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